



# “다작의 비결은 위기감을 변화에 대비합니다”

중영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

다정하고 세심한 CEO 싱글대디 역 첫 회 시청률 5.2%서 10.5% '인기' "늘 겨울이 온다는 마음으로 일해 배우는 재료...항상 신선도 유지 노력"

“인기에 들뜨지는 않냐고요? 이제 제 나이가 마흔인데, 잠깐의 인기에 들뜨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웃음)” 말끔한 외모, 안정적인 연기력, 영동하면서도 재치 있는 예능감까지 고루 갖춘 배우 이준혁은 대표적인 중년의 인기 남자 배우 중 한 명으로, 요즘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랜만에 출연한 로맨스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가 흥행에 성공한 이후로는 특히 더 그렇다. 드라마 종영을 앞두고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준혁은 “작품을 할 때마다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큰데, 이번에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소속사 대표가 같이 온 게 처음이라서 이제야 좀 작품의 화제성을 실감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준혁이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연기한 유은호는 다정하고 세심한데, 일도 잘하는 '싱글대디'다. 일 이외의 모든 것에 서투른 최고경영자(CEO) 감지훈의 곁을 지키며 티 안 나게 그의 빈틈을 메꿔준다. 뒤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유은호를 두고 시청자들은 '유니콘 남주'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다. 현실에는 존

재하기 어려운 환상 속 남자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첫 회 시청률 5.2%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3회 만에 10.5%를 기록했고, 이후로도 계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했다. 이준혁은 “유은호를 밴드 음악에서 베이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비유했다. 그는 “유은호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다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보컬과 달리 잔잔하게 깔린 베이스처럼 존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은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함께 한 제작진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배우는 그저 현장에서 비싼 소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제게 돌아오는 칭찬은 모두 의상팀, 촬영팀, 조명팀 등이 저를 잘 가꿔서 카메라에 담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장르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저의 괴이한 표정과 눈빛들을 포착했다면 이번에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각도에서 저를 찍어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선택했다”고 돌아봤다. 2007년 가수 타이푼의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준혁은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 '비밀의 숲', '60일, 지정생존자', 영화 '신과 함께', '범죄도시3'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영화 '소방관'과 드라마 '종가나 나쁜 동생'에서 주연한 이준혁은 드라마 '광장', '레이디 듀아',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캐스팅돼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혁은 “다작의 비결은 위기감인 것 같다”며 “저는 늘 '곧 겨울이 온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는 그저 재료일 뿐이니 평소에 신선도를 잘 유지하고, 좋은 감독에 의해 요리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키 17'

## 봉준호 '미키 17' 해외서 호평

런던 시사회·베를린국제영화제서 공개 “反자본주의적 SF”... “인간에 보여주는 작품”

최근 영국 런던 시사회와 베를린국제영화제를 통해 연이어 공개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에 대해 해외 언론이 호평을 보내고 있다. 16일 영화 평가 사이트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미키 17'은 100점 만점에 74점의 평론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매체의 평론가 15명이 매긴 점수의 평균치를 낸 것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긍정적(75~100점), 5명은 중립적(40~74점) 반응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부정적(0~39점)인 평가를 한 사람은 없다. '미키 17'은 봉 감독이 '기생충'(2019)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을 휩쓴 뒤 6년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제작 확정과 동시에 전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이 원작인 이 작품은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돼 위험한 임무를 맡고 죽음을 반복하는 복제인간 미키(로버트 패틴슨 분)의 여정을 그린다. 열일곱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여덟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면서 이야기가 본격 전개된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메타크리틱을 통해 '미키 17'에 만점인 100점을 매기고 “노동 계급을 위한 SF”이자 “한 남자가 자신이 행복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빠르게 공화당 정권에 굴복하는 가운데, 냉혹하면서도 묘하게 삶을 긍정하는 반(反)자본주의 SF 영화”라며 “'미키 17'은 마지막으로 (정치적 압박의) 문턱을 넘는 정직한 예술 작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1점을 준 미국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는 '미키 17'이 '설국열차'(2013)와 '옥자'(2017)의 장점을 합친 작품이라며 봉 감독이 현재까지 내놓은 영어 영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인디와이어는 “단순히 봉준호가 자본주의를 증오한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걸작이 아니다”라며 “봉준호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국 영화 매체 스크린데일리는 “봉준호의 가장 암울한 사회 비판 영화”라고 평하며 70점을 매겼다. 그러나 '기생충'과 비교하면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키 17'은 시각적으로 화려하며, 강력한 감정적 순간과 공포 요소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초반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이후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전개되면서 힘이 빠진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미키 17'에 다소 낮은 60점을 줬다. 같은 점수를 매긴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트는 “봉준호의 전작들처럼 과감한 전개를 이어가지만, 아쉽게도 주제적 일관성이 모호하다”며 “어딘가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이 영화의 개봉 일정이 1년 동안 계속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줄지도 모른다”고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50점을 매긴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안타깝게도 봉준호의 비전이 가장 잘 작동하는 영역의 영화는 아니다”라며 “조잡하고, 시끄러우며, 설교조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 세상 소풍 왔다, 나머지 인생은 쿨하게~”

'전국노래자랑' 故 송대관 생전 모습 담긴 별세 100여일 전 촬영분 방송

“한 번 먹은 나이를 줄일 수는 없지만 / 못다 한 사랑도 다시 해보고 (...) 한 세상 소풍 왔다 / 나머지 인생은 쿨하게.”(송대관의 '지갑이 형님' 가사 중) 지난 7일 별세한 트로트 가수 고(故) 송대관(사진)의 마지막 방송 무대가 지난 16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방영됐다. 이날 정오에 방송된 '전국노래자랑' 충청남도 당진시 편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약 100일 전 노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개막 무대에 오른 고인은 한 손에는 마이크, 다른 한 손에는 가족 지갑을 쥐고서 '지갑이 형님'을 열창했다. 얼굴은 다소 여윌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힘이 넘쳤다. '인

생 무지개 잠시 잠깐이지 / 펑펑 열려라 지갑이 형님'이라는 호쾌한 가사와도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구절 박자를 늘이는 무대 매너도 돋보였다. 그는 노래를 마친 뒤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무대는 지난해 10월 22일 충남 당진실내체육관에서 녹화한 것으로, KBS 측은 무대 영상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고인은 지난 7일 79세를 일기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해뜰날', '유행가', '내박자' 등 히트곡을 부르며 태진아, 현철, 설운도와 함께 '트로트 사대전왕'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